

社說

양문폐수처리장 사태 해결 바란다

양문공단에 입주한 38개 업체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운전 업체인 E&B TECH(이엔비테크)가 수차례에 걸쳐 중수기업진흥공단에 폐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값과 인건비 등 운영비가 없어 수질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감리단 이야기는 E&B TECH(이엔비테크)의 주장과는 크게 다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감리단은 E&B TECH(이엔비테크)에게 폐수처리장 시운전과 관련한 인 수인제나 기성금 문제는 처음부터 계약관계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과 E&B TECH(이엔비테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E&B TECH(이엔비테크) 측에 현대산업개발 채권을 양도받고 운영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문공단 폐수처리장 처리 규모는 일일 1만4천톤이다. 만약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문공단에 입주한 38개 기업체들은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양문공단 폐수처리장 사태의 원인은 발주처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간의 법적 분쟁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감리단은 수질사고를 막기 위해 계약관계도 없는 E&B TECH(이엔비테크) 측에 기성금을 지급하기 위해 채권확정 금액과 지급조건 및 절차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지불에 대한 각서만 요구했는데 이 조건조차도 무시하면서 수질사고를 낼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10일 폐수처리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준공에 정밀한 10월 이후 발생한 폐수처리비용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와중에서 현대산업개발과 폐수처리장 시운전업체로 계약을 체결한 E&B TECH(이엔비테크)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이 현장에 잔류하게 됐다.

중요한 점은 폐수처리장 발주처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간의 분쟁 사태가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면서 현재까지 폐수처리장 시운전을 하고 있는 E&B TECH(이엔비테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쟁이 자칫 수질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E&B TECH(이엔비테크)는 인수인계를 하든지 아니면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달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월과 4월분 일부 기성금을 주고 이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질사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현대산업개발, E&B TECH(이엔비테크)간 법정싸움에서 정착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시민과 입주 업체들이다.

3자간의 법정싸움이 관련업체들의 조업 중단나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포천시민은 물론 공단입주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현대산업개발, E&B TECH(이엔비테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조속한 시일내에 윈윈한 합의를 찾아 양문공단 폐수처리장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현대산업개발, E&B TECH(이엔비테크)간 법정싸움에서 정착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시민과 입주 업체들이다.

본지 조사위원회 내촌면 지부 창립

조용현 초대 포천군의회원을 지부장, 김명중 총무 선출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지난 27일 내촌면 모 음식점에서 내촌면 지부를 창립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중현)는 지난 27일 내촌면 모 음식점에서 내촌면지부를 창립하고 초대 포천군의회원을 역임한 조용현씨를 지부장으로, 총무에 내촌면 낙우회장을 역임한 김명중씨를 선출했다.

이날 창립식에 참석한 김중현 조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촌면 지역은 47면 국도가 지나가는 포천시 관문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조사위원회 창설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사를 포천신문이 취재보도함으로써 작으나마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내촌면 지부를 창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식에 참석한 김중현 조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촌면 지역은 47면 국도가 지나가는 포천시 관문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조사위원회 창설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사를 포천신문이 취재보도함으로써 작으나마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내촌면 지부를 창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내촌면에는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가 본지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주부명예기자단 최희숙 부단장과 한희수 내촌면지부장등 10여명이 주부명예기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윤아용 운영위원등. 이희선 운영위원 등이 활동중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산지부 정기회의

회비의 10분의 1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산지부(지부장 김선예)는 지난 23일 가산면 모 음식점에서 가산지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임경순 단장과 김선예 지부장이 인사말을 통해 "가산면 지역은 47면 국도가 지나가는 포천시 관문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조사위원회 창설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사를 포천신문이 취재보도함으로써 작으나마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내촌면 지부를 창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예 지부장은 "주부명예기자단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람의 동전모으기 운동에 가산지부도 적극 동참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가산면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행사는 물론 친목도모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가산면지부 자체모임시 납부하는 회비중에서 10분의1을 불우이

김명중 기자 best114@paran.com

郷土원로초대석 ⑩ …… 한내노인회 회장 柳百烈

40여년간 약수터 회원 가꾸며 건강지켜

‘사람은 한 우물만 파야 성공한다’



유백열 한내노인회 회장

『오복중의 첫 번째가 수로 무병으로 천명을 다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것이 사람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제 나 병인생으로 금년에 80이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한 탓인지 아직까지 보약을 먹었거나 병원에 간 적이 없으며(연탄가스) 5시간 치료되는(현재는 품의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2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가

정신 가집인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상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저는 괴로운 운명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으로 세상에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만악에 짐승등의 동물로 태어났던 의·식·주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일생에 마음대로 목욕한 번 못할텐데 인간으로 세상에 온 것을 다시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 집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매일의 생활)입니다. 저는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약수가 있는 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40여년간 다니는 산으로 제 손으로 가꾸어 놓은 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초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지요. 매일 가서 주위를 청소하고 약수를 마시지요 위의 청소지요. 3급을 마시고 하산하여 자원봉사요원으로 2시간여의 지정된 곳의 마을청소를 하고 부족된 만보의 걸음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와 제 나름대로 맨손체조 22가지 동작의 체조운동을 30여분간 합니다. 우천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만보를 걷고 30분의

체조를 하지요. 식사는 외출외에는 매일 아침 식사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오후6시에 규칙적으로 합니다.

가족의 식사는 운반된 약수로 합니다. 저의 매일 생활을 적어 보았습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관리의 참고가 되시면 행일가 합니다. 2005년6월10일 명유회원 류백열

류 응은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 틀뚝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후 일본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야간에 공부하고 돌아와 경기도청 공무원, 농협상무, 축협상무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통해 '사람은 한 우물만 파야 성공한다'는 인생철학을 깨닫게 되었다는 柳百烈(79·사진)옹이 포천명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이다.

치더라는 것이다. 이곳이 바로 문화유씨 시조의 묘지리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한다. 류 응은 통일이 되면 시조가 묻혀있는 구월산에 가보고 싶은게 소망이라고 밝혔다.

포천초등학교 28회 졸업생인 류 응은 한국전쟁중 고향에서 공무원 시험을 쳐 이천군청, 광주군청에 근무하다가 5·16을 맞게 되고 당시 4만5천원의 공무원 봉급으로 살기 어려워 은행고시를 준비하여 농협중앙회 시험에 합격해 가평농협에 근무하다가 포천농협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퇴직하고 40만원을 받아 성남에 집을 사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크게 실패했다고 한다.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를 가훈삼아 2남녀를 잘 키워온 류 응은 한 우물만 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류 응은 차 대신 소주 한잔을 권하는 류 응에게서 이 시대 후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 많다는 생각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다는 다짐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송중채

(주)에스엠 대표이사

포천에서 20여년간 (주)삼흥을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비를 바탕으로 STAPLE FIBER 및 PLANT까지 수출하는 회사로 발전시켜온 송중채(사진) 대표이사

가 이번에는 군내면 용리동에 (주)에스엠을 설립해 가구표면 코팅용 필름 생산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송 대표이사가 새롭게 시설을 갖추고 생산에 들어간 (주)에스엠은 철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대기업인 한화화재와 새한 등과 계약하고 본격적인 필름생산에 나섰다.

한 달 전기료만 해도 7천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주)삼흥은 24시간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주)에스엠 또한 (주)삼흥 못지 않게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 대표이사는 "이처럼 회사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인 업체로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주)삼흥 창립멤버가 21년 전부터 함께 노력해오기 때문"이라며 기



심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신문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송 대표이사는 "최호열 발행인은 동생처럼 아끼는 후배이며 정의롭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며 "현재 포천신문은 깔끔한 편집과 다양한 기사 등 포천에서 꼭 필요한 신문으로 성장했으며 서울에서 받아보는 중앙일간지를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송 대표이사는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며 "기회는 바꾸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병호

대북합성(주) 대표이사

"지난 20여년간의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포천에 본사를 두고 의정부와 구리, 양주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북합성(주) 유병호(사진) 대표이사는 경영노하우에 대해 유행에 한발 앞선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평택이 고향인 유 대표이사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 고객이 포천과 철원에 많아 포천으로 본사를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대북합성(주)은 인테리어 전문업체로 한화중화화학으로부터 바닥재를 공급받고 기타 실내장식에 필요한 제품을 여러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 필요한 곳에 납품하고 시공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유 대표이사는 "50여명의 직원들이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충실하자"는 사훈 아래 매출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을 크다고 지적한다.

결국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신도시개발이나 공단 유치 등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포천에서의 군복무를 계기로 포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유 대표이사가 포천신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역신문으로 창간할 당시에 뜻 있는 분들과의 만남을

선진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

포천신문은 중앙일간지처럼 느낌 좋은 신문

업운영에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15년간 직장생활을 바탕으로 창업한 회사를 지난 20여년간 착실하게 운영해 온 송 대표이사는 "오너는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항상 정의를 걷는다"는 좌우명으로 삼고 회사경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노력한 결과 직원 1인당 년간 매출액이 3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기계설비는 자체 제작한 시설이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시설이기 때문에 고장이 내더라도 즉시 수리하여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차산업으로 캐피탈 원사, 자동차 원사, 토목용 원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수 50%, 수출 50%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송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전제하고 "특히 반기업 정서의 노조 문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은 노조 문화에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라 노조 문화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 포천시의 경제정책에 대해 송 대표이사는 "타 지역에 비해 까다로운 세 사 실"이라며 "공장신축 등에 있어 법의 테두리에서 신속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아주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송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애사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내부적인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회사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직원들간에 화합하고 신바람 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정치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인사들과 인간적 교류를 갖고 있지만 사업을 위해 부탁 한번 한 적이 없다는 송 대표이사는 "그러나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부인과 시중바구니를 들고 함께 시장을 볼 여유도 갖고 있다는 송 대표이사가 포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큰 뜻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포천시가 죽기는 중소기업이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포천신문 자문위원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송 대표이사는 "포천신문이 늘 그렇게 중앙 일간지 못지 않게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포천신문이 더욱 노력하여 포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유행에 한발 앞선 제품 유통이 기업성장의 지름길’

‘지역발전을 위한 매체로서의 역할 돋보이는 포천신문’

유 대표이사는 "최근 2~3년동안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적자에 휩쓸려가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투자자는 생각으로 이 불황을 견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대표이사에게 더욱 힘들었던 것은 갑상선 암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다. 이제 6개월만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말하는 유 대표이사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밝혔다.

이 병을 얻게 된 것은 역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따라서 요즘은 유 대표이사는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운 헬스는 물론 걷기 운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또 조만간에 골프를 시작하여 건강 다지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대표이사는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모든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무난하다고 생각하지만 포천시 발전의 속도가 인근에 구리시나 양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창간된 신문사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다. 그동안 꾸준히 변함없이 처음 그 뜻을 이어 많이 성장한 포천신문사에 박수를 보내며 운영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은 의사나 남들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며 오직 본인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가장 평범한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주목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유 대표이사는 "큰 욕심 없이 착실한 회사를 경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3년 더 사업을 전진한 후 직원들에게 맡기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유 대표이사는 "포천신문사가 포천시 민사회에 꼭 필요한 매체로 성장 한만큼 더욱 앞장서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으로서 힘이 되는 데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협회에 1년에 1~2회 봉사활동에 나선다는 유 대표이사는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정성이 많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유 대표이사는 우리사회의 중소기업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산지부는 지난 23일 가산면 모 음식점에서 가산지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웃습기 창구에 기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가산면 지부는 매일 넷째주 화요일에 정기모임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날 이은미 총무는 "글 연재를 통해 다양한 사고와 글쓰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열심히 기사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마친후에는 원희순 주부명예기자의 카페같은 전원주택에서 커피 한잔을 다양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Publica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 list of board members.